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에 관한 연구
김해시 거주 태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AZAGAMI KEIKO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에 관한 연구
김해시 거주 태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SATO NORIKO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국제지역학과

AZAGAMI KEIKO

AZAGAMI KEIKO 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 월



위 원 장 정치학박사 김 진 기 (인)

위 원 인류학박사 노 용 석 (인)

위 원 인류학박사 SATO NORIKO (인)

<목차>

I. 서론

- 1. 연구 목적.....1
- 2. 연구 방법.....6

II. 외국인 노동자 현황

-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8
- 2. 태국 노동시장.....17

III. 예비조사

- 1. 조사방법20
 - 가. 대상자의 범위 선정.....21
 - 나.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실시21
- 2. 자료분석25

IV. 본론

- 1. 가설설정46
- 2. 본 조사48
 - 가. 결혼48
 - 나. 수입52
 - 다. 부업61

V. 결론 65

A Study on the Long-Term Residence of Foreign Workers
A Study on the Thai Workers in Gimhae City

Azagami Keik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gion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asons that immigrant workers from Thailand who live in Gimhae city in Gyeongsangnam-do remain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Economic approaches on immigrant workers are not appropriate for analyzing the phenomenon that immigrant workers extend their stay in Korea, this thesis attempts to explain it by applying the immigrant systems theory to the case of Thai workers in Gimha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nstruction of social networks contributes to accelerating their prolonged stay, a questionnaire survey of fifty Thai immigrant workers in Gimhae was conducted as the preliminary research to find how they build their social network and what sort of activities they do by using it.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ir social networks are useful for increasing marriage opportunities and obtaining the information of the job in better possible condition and subsidiary jobs. Thus, the hypotheses that the author built is the following. When the Thai immigrant workers make and utilize more extensive social networks; 1) they can increase marriage opportunities; 2) they can obtain information for obtaining a better income; 3) they can increase chances for having side jobs. Interviews with Thai immigrant workers in Gimhae were carried to examine the hypotheses. As for the marriage, when they build more intensive social networks, the opportunities for finding spouses-to-be increase. Those who married in Korea may remain in Korea for a prolonged period. The Immigrant workers whose stay in Korea is legally acknowledged have stable income sources so that they extend their social networks, which become a social capital for them, and exchange information for seeking job opportunities for obtaining a better income. However, they do not use such social resources for changing jobs. By contrast, the illegal immigrants are unable to collect information for a better job

and for getting better income, as the opportunities for expanding their social networks are limited. No legal resident is engaged in a side business. Some illegal immigrants have a subsidiary business by mobilising their networks. No legal resident is engaged in a side business. Some illegal immigrants have a subsidiary business by mobilising their networks. As such business relations are active only for pursuing financial gain, they may not change them to sustainable and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s. If they could be successful in doing so, it may lead them to remain in Korea for an extended period.

Keywords: Immigration systems theory, Social networks, Sedentary immigrant workers, Thais, Gimhae



I. 서론

1. 연구목적

1987년 이후 노동임금 상승과 3D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조업에서의 노동인력난이 심각해져, 산업도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몰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노동인력부족 현상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였다(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 899:2009).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 총 체류자 중 90%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규모30%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에서 일을 한다. 이는 임금이 싸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이다(中央日報, 2011).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문제도 같이 증가하였다. 현행의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강제출국 후 1-5년간은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지만 자발적인 귀국자는 6개월 후면 입국이 가능하다(中央日報, 2011).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형성한 밀집지역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박세훈, 70-71:2010). 서울외곽,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경상남도 김해시 역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산업 도시이다. 안산시에서는 앞서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외국인 주민지원기반의 구축, 지역사회적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외국인주민의 증가기반 조성, 다문화가정의 지원, 다문화공동체의 형성, 다문화 이해의 촉진 등 다양한 다문화공존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

으며 은행, 진료소 등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살기 좋은 대표적인 도시이다(세계일보, 2009). 또한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김해시에서는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문화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도가 낮아 꼭 갖추어야 할 만큼의 인프라 등이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동상동 구 시가지에 위치한 ‘외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매년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동시에 다양한 나라들의 음식점, 생필품가게, 휴대폰가게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여 장기화가 되는 이유가 안산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태국인 노동자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 보다 역사가 길고(김해시청 설명) 체류장기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태국인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의 체류목적, 동기, 가족형성 과정 등이 다양화가 되어서 하나의 단일 된 집단의 움직임을 본다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삼아서 보기 보다는 개개인의 유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은 연구를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유대관계 강화가 왜 필요로 하는지를 참고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를 중심으로(나금실, 김희재, 최송식, 2010)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가족에 관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가족의 재결합이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가족의 재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가족간의 유대를 유지하기 위한 절실함과 함께 생활수준이 불 보듯이 낮아지는 본국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경제적인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Ibid, 93-95:2010)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부터 장기체류를 하거나 정착하려고 하지는 않으나, 당초에 예상과 달리 생각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없어 체류연장을 생각하게 된다(桑原, 11:2008).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높은 생활수준을 알게 되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 보다 체류를 생각하게 된다(関根, 71:2006)는 견해도 있다. 또한 돈을 못 버는 이유로서 2010 년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1 명당 연간 평균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 하위 10%에 비교해서 훨씬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는 임금을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2007 년에는 2249 명에서 2008 년에는 6849 명, 2009 년에는 9452 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労働政策研究·研究機構, 2:2006).

桑原(10:2008)의 지적에 따르면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다른 나라로 송출할 때 장래의 패턴을 먼저 그린다고 한다. 즉,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정기간 해외취업을 하여, 해외에서 번 돈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이 자금으로 작은 규모의 공장이나 가게를 열 수 있는 생산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그 외에는 외국에서 기술을 습득한 후 귀국하여 모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한다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경우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모국에 일자리가 생기면 돌아와서 외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모은 돈을 활용한다는 패턴이 보인다. 이러한 필리핀이나 베트남 노동자들의 패턴은 <도표 1>의 「이민 발전의 3R」에 해당한다고 한다. 첫 번째 R 인 Recruitment 는 어떤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는가, 두 번째 R 인 Remittances 는 외화송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 R 인 Return 은 귀결, 성과를 뜻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사이클 패턴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결이 끊어져, 송금을 하거나 본국으로 기술이전을 하는 등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모국에 돌아가려고 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괴리가 생겨 외국체류가 장기화되거나 정착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제기하는 사이클은 만약 잘 돌아간다면 적당한 기간에 일을 하고 모국으로 귀국할 수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 이론으로 왜 장기체류화가 되는지에 대한 설

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해외로 가는 목적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장기화가 되는 것은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민 발전의 3R」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기화 과정은 경제학적 이론으로만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노동력수급구조의 불균형 등을 이동의 설명변수로 하는 경제학 접근에 따르면 노동인력의 수요가 감소하면 이민도 감소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노동인력시장의 수요가 크게 감소해도 외국인 노동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의 최대화 같은 개인의 동기뿐만 아니라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의 유무, 비경제적 요소도 관련되어 있다. 이동현상에 있어서 임금격차, 노동력불균형구조의 존재 등 경제학 이론의 설명변수는 이민발생의 전제조건이 되지만 충분한 조건이라 말하기가 어렵다(金松花, 13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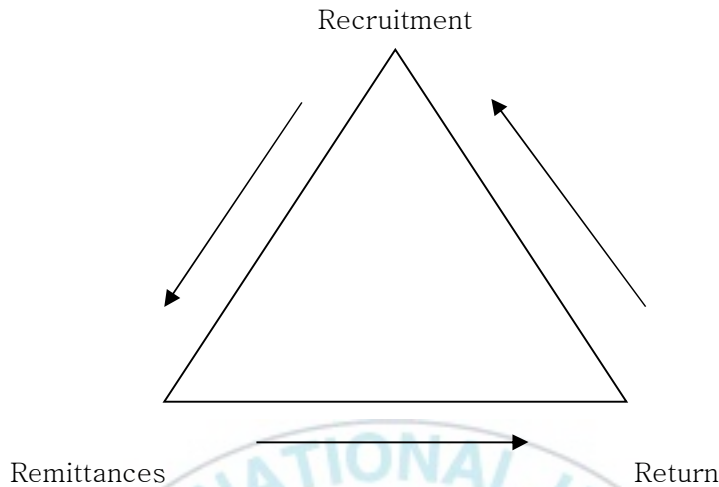
필자는 앞에서 인용한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 다른 관점에서 체류장기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주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80년대 이후 주목을 받게 되는 이민시스템론이 유효하다. 이민시스템을 구성하는 행위주체는 혈연, 지연(地緣), 친분에 의한 가족, 친척, 친구등과 연결되는 일련의 사람들로 강한 연대와 평등주의, 상호매개라는 요소들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민시스템론의 기본은 이민의 움직임을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구조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인 구조는 제도적 요인을 가리키며, 미시적인 구조는 이민자 자신의 네트워크나 관습, 신조(信條)를 말한다(Stephan Castles & Mark J. Miller, 1993, 関根政美, 関根薫訳, 35:2011). 본 논문에서는 미시적인 구조에 주목하여 이민자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민자 자신이 전개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검토할 것이다.

이민시스템론은 푸시풀(push=pull)이론 또는 역사구조론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처음에 시도한 이민은 여권이나 비자 준비, 주거, 취업 등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민은 먼저 시도한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을 구사하여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주가 계속 진행되면 점차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다. 가족, 친척, 친구, 동향인 간의 신뢰관계 등의 자발적인 관계는 출신지와 속한 집단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값이 싼 국제전화나 전자메일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통신 수단의 발달에 의해 더 쉽게 유지되어 집단 간의 정서적인 일체성을 유지한다. 이런 시스템형성에는 가족이나 친척, 동향인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 알선업자나 인력중개업자 등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민 시스템은 사람의 이동뿐만 아닌 송금이나 자금, 상품의 흐름도 포함된다. 이민이 송출국에서 도입국으로 유입되는 일방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는 순환이동도 이민시스템론에 포함되어, 푸시풀(push=pull)이론이나 역사구조론과는 다른 부분이다(樽本, 58:2009).

본 논문에서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유입된 태국인 노동자를 조사하여,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장기화가 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 이유를 밝혀 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방법과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체류화 과정을 분석한 것으로 개개인의 유대관계의 관점에서 연구된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한다.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합법노동자, 노동자가 불러온 가족, 비합법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합법노동자는 단기취업(C-4), 비전문취업(E-9)비자를 소유하는 노동자로 정의한다.

<도표 1> 이민발전의 3R



출처: 桑原靖男 『外国人労働者と地域社会の未来』, 10:2008

2.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김해시 거주 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예비조사로써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별 인터뷰를 할 것이다.

양적 방법인 설문조사는 층화추출법으로 태국 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20개의 일문 일답식으로 되어 있고, 설문은 체류년수, 수입 등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조사를 집계한 후 태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왜 장기화가 되는지를 분석하여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예비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질적 방법인 인터뷰를 할 것이다. 이 인터뷰는 태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약 스무 명 정도의 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대상자 선정은 김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태국인과 다문화 가족센터의 태국인 담당자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을 동반할 것이다. 예비조사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1장의 선행연구를 검증하였고 외국인 노

동자 현황에 대해서도 검증하여 설문지 작성에 반영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 할 것이다.



II.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1980년대 노동인력의 수출국가에서 노동인력을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표1>와 같이 노동인력 부족은 지속되었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¹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은 점점 더 심화되었으며 경영자로서는 채워지지 않는 노동력의 해결을 위해 결국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1987년 무렵부터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건축 붐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건설업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극에 달하게 되어서 1987년에 약100,000명, 1991년에는 약220,000명 이상의 단순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고학력자가 많은 한국인들의 3D업종 회피 현상으로 인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한국인의 적은 인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1992년 말부터는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1993년 말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을 통해서 한 해에 많게는 20,000명이 넘는 외국인력이 입국하였으며, 1995년 12월에 130,000명이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1997년 12월에는 26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국인 노동자수의 2%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8년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귀국을 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의 활발한 경제성장에 의해 임금도 상승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임금은 매년 전년대비 1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표2>와 같이 IMF위기 이후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여 1998년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가 회복하면서 임금도 상승세로 전환하여 6%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樽本 150-151:2009).

¹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 어용 노조의 민중화와 신규 노조의 건설로 이어졌다.

<표1> 노동인력 부족율(1990~1993년)

년도	전 직종			제조업		
	취업자수 (명)	부족인원수 (명)	부족률 (%)	취업자수 (명)	부족인원수 (명)	부족률 (%)
1990						
1991	4428226	192055	4.34	2419541	165852	6.85
1992	4563502	250108	5.48	2445875	221785	9.07
1993	4615224	196563	4.26	2320383	156896	6.76
1994	4534988	163446	3.62	1964016	118529	6.04

출처: 고용노동부, 2002

<표2> 임금 상승율 추이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임금상승률(%)	7.0	2.5	12.1	8.0	5.6	11.6	9.4	6.0	6.6	5.7	5.6

출처: 「고용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8

2004년 8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노동인력부족 현상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정부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 제도는 정부가 송출국들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근해수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단순노동자를 수락하는 것이다. 2007년까지는 연수생제도와 병행하였다. 이 제도는 양국간 협정을 기본으로 한 것이

며, 이 제도를 통해 도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 업종, 송출국은 정부가 결정하여 매년 조정한다. 송출국과 한국정부 사이에서는 공적 기관만이 노동자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MOU가 체결되면서 사회보장은 개선되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은 3년이지만,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1년 10개월 가량 더 연장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1950~60년대 서구국가들에서 이민의 정착을 초래한 손님 노동자 제도(guest worker system)²와 유사하며 사회보장제도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시행기간보다 개선되었다.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단체나 송출기관의 한국 지부에 노동자의 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 고용허가제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상담, 한국어교육, 외국인 노동자의 커뮤니티지원 등을 맡았다. 그러나 직장이직이나 3년 이상의 체류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연수제도와 다르지 않다 (Ibid, 154:2009).

고용허가제에 따라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 몽골,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MOU를 체결하여 34,82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제일 많은 9,323명, 태국인이 6,522명, 필리핀인이 6,140명, 몽골인이 4,933명, 인도네시아인이 4,720명, 스리랑카인이 3,188명의 순서다. 즉, 이 제도의 시행 이후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즉, 2011년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 태국, 동티모르, 필리핀, 미얀마 등 15개국과 MOU체결을 맺었다. 2006년 기준으로 총 체류자 600,138명 중 합법 체류자 545,369명, 불법 체류자 54,769명이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순이다. 비자 자격별로 보면 총 체류자 600,138명 중 전문 인력 47,392명, 단순 기능인력 552,746명이다(勞働政策研究·研究機構, 12:2006).

²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한 제도로 국가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정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 유형이다.

유럽은 이동 가능한 노동시장이 많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MOU체결 15개국에서는 한국행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은 한 해 수만 명이 응시한다. 과거에는 일본이 급여와 대우 등이 좋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고 싶은 나라였지만 점차 송출국과의 소득 차이가 감소하여 우위성을 잃었다 (日本經濟新聞, 2016). 체류기간 역시 일본은 3년이지만 한국은 기술을 습득하면 숙련 노동자로서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대만 역시 최대 12년까지 체류할 수 있어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과 함께 선호하는 곳이다.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초기비용(initial cost)은 비싸지만 체류기간은 짧고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일본은 기능실습생 즉 기술을 배우는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 있는 반면 한국과 대만 양국은 노동자로서 받아들여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초기비용(initial cost)은 일본의 3분의1에서 5분에1정도이며, 체류기간도 일본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다(JCASTニュース, 2014).

한국정부는 2011년 12월29일, 국무총리실주최 정책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 2012년의 외국인노동력 도입 규모를 2011년보다 9,000명 많은 57,000명으로 확정하였다. 매년 경기동향과 노동시장의 전망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추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 규모를 확정하였다. 업종별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49,0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을 중심으로 배분하여, 시기별로 상반기(1~6월)에 60% 이상을 고용한다. 중국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동포(H-2)」의 규모는 2011년과 같은 수준의 303,000명으로 정하였다(고용노동부, 2011).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8 월호』에 따르면 2014 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189,126 명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국적 불법체류자가 69,310 명(한국계 18,904 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26,505 명, 태국 26,332 명, 필리핀 12,840 명 순이었다(법무부,

2014). 세 번째로 불법체류자가 많은 태국의 경우는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태국인 노동자를 한국시장으로 보내는 중개업자의 개입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 정부의 불법노동자 단속강화를 위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태국정부는 관련업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단속에 나섰다(勞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6).

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보면 태국인 노동자수는 730명으로 합법노동자수는 많지 않지만 불법체류자 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확한 불법자의 수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연구대상으로써 필요가 필요로 한 데이터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경상남도 김해시도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밀집지역이 되어, 현재도 중소기업이 밀집한 김해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드는 곳은 김해시에 있는 6,300개 중소기업 가운데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업체가 전체8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들 대다수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김해시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영세업체들이 절대 다수여서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계속 늘어나 2014년 말에는 2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김해시의 산업단지 발전의 배경에는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시설의 집산화 및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시도하였으나, 정부가 주도한 공업중심의 대도시성장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심화, 산업 부문간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소기업관련 정책에서 정부는 지방공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특화산업을 지정하여,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산업단지의 조성은 한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김환선, 이성호, 45-46 :2002).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Ibid, 51-52:2002)에서 김해시 산업단지 입주업체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은 인력공급 56.5%로 가장 많았다.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 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노동력 수요를 줄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선호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2000원으로 한국인 노동자 182만 5000원보다 45만 300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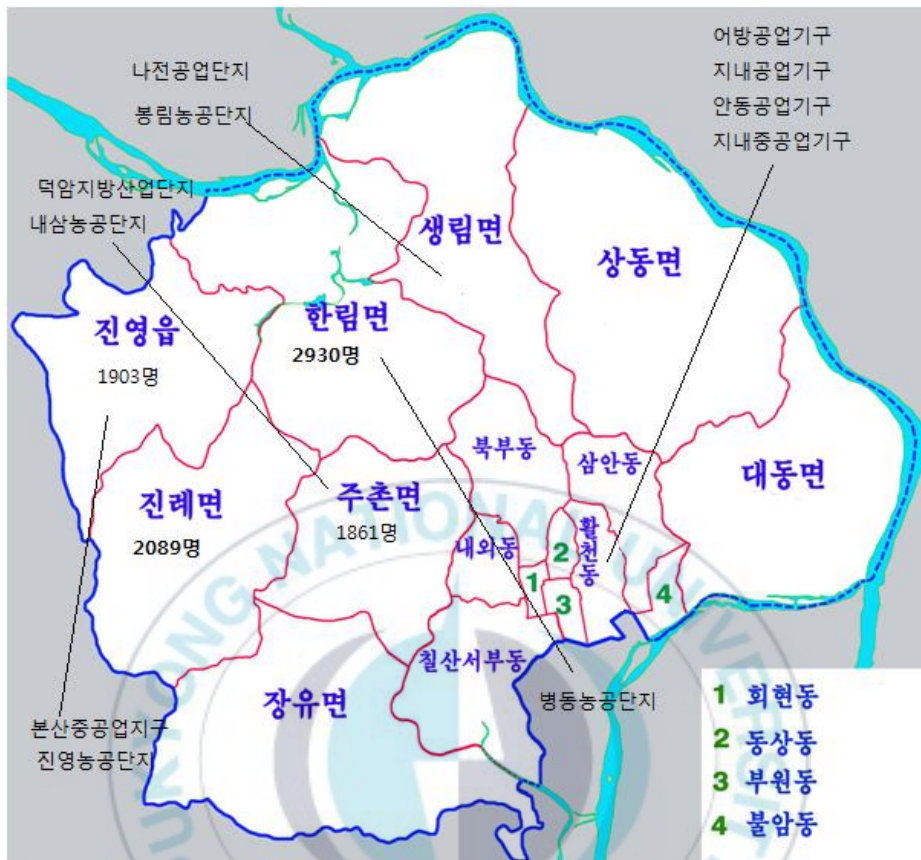
2011년 11월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40,192명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11,53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외국인 노동자 분포를 보면 특정 공업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기반에 따라 분포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김해, 양산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부산광역시 등의 대도시와 인접하여 부산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며, 또는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산업시설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동임해공업벨트를 중심으로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고 김해국제공항, 부산항,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물류유통과 원자재 확보의 이점 등으로 6,297여 개(2010.10.12기준)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기계, 자동차, 금속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메카노 21 기계산업과 의생명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어방공업지구, 지내공업지구, 안동공업지구, 지내중공업지구, 나전공업단지, 본산중공업지구, 봉림농공단지, 진영농공단지, 내삼농공단지, 덕암지방산업단지, 병동농공단지 등 총 11개가 있다(두산백과). 이로 인해 <표 4>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여 2007년에 6,922명, 2008년에 9,418명, 2009년에는 10,692명에 달하여, 2010년에 10,544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11년 현재는 11,539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3년간 일한 뒤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1년 10개월 가량 체류기간을 연장하

고 있다. 2012년 7월1일부터는 같은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절차가 짧아져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태국 식당 사장님 설명).

김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작업환경도 열악하다. 주당 평균시간은 40시간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말과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 등 70시간 넘는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 설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지는 <도표2>를 보면 중소기업이 밀집한 한림면 2,930명, 진례면 2,089명, 진영읍 1,903명, 주촌면 1,861명 등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시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비교적 적다. 외곽지역에는 특히 업체들의 주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사업장 개선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몇 년 전부터 김해시의 동상동에 위치하는 ‘외국인 거리’가 등장하였다. 이 장소(김해재래시장과 외국인 거리 일대)는 원래 김해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구시가지로 주변의 주택도 노후화되었으며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이는 장소로서 음식점, 휴대폰가게, 여행사 등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변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해시청의 인터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외국인 문화 거리’를 만들 계획도 있었지만, 아직 실천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김해시청 경제진흥과, 경제활력담당 설명). 이 지역은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이 노동자들은 물론 외곽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주말마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한다. 이러한 특색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비조사를 위한 장소로 선정하였다.

<도표 2> 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분포도



출처: 필자편집

<표 3> 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15,626 명	3,741 명	4,135 명	1,107 명	1,355 명	730 명	1,206 명	1,435 명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기타
232 명	360 명	313 명	224 명	326 명	143 명	40 명	549 명

기타: 일본 122, 미국 110, 러시아 39, 카자흐스탄 1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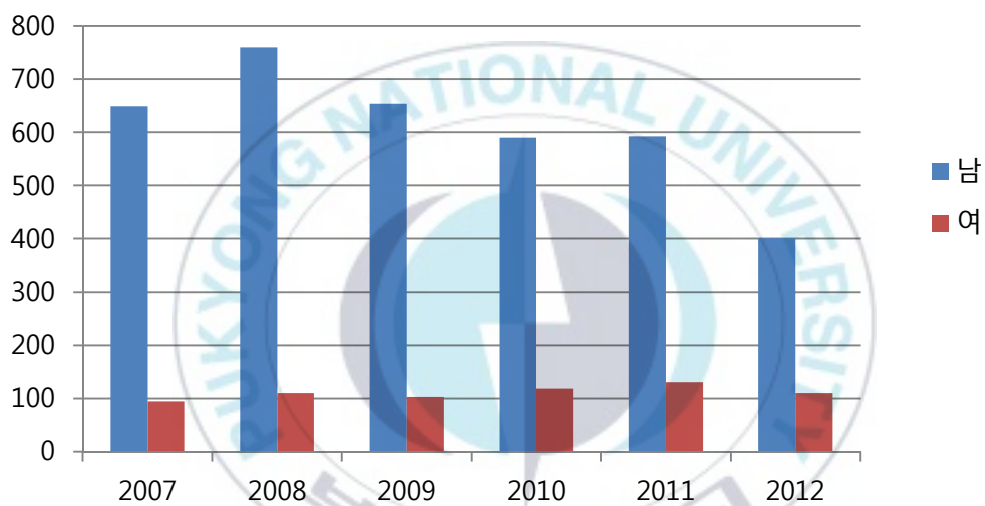
출처: 김해시청, 2011

<표 4> 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추이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 노동자 수(명)	6922	9418	10692	10544	11539

출처: 필자작성

<도표 3> 연도별 성별추이



출처: 필자작성

2. 태국 노동시장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태국인 노동자 대상이기 때문에 태국의 노동이민정책 및 이민노동자를 배출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태국은 외국과 문호를 개방하여 양국간 협정, 지역사업통합, 경제통합 주도권 등 경제통합과 지역개발협력을 도모해왔다. 태국경제개발에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나 진출이 눈부시게 증가하여,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태국에서의 취업기회, 태국인 노동자에게는 해외에서의 취업기회를 만들었다.

태국인 노동자의 노동인력 송출을 관리하는 기관과 제도는 노동청(MOL)과 하부 조직이다. 노동청의 고용국, 기능개발국, 노동보호복지국, 그리고 사회보장국이 중심으로 해외에 취업하는 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거나 보호한다. 노동청 산하의 해외고용관리국, 또는 태국해외고용관리국(TOEA)의 명칭으로 알려진 기관에서 태국인을 고용하여 해외로 보내는 일련의 활동을 공적 기관이나 민간업자와 협력해서 하고 있다. 태국해외고용관리국은 고용국, 경찰청, 외무부에서 파견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국인 노동자가 해외에서 취업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도우며 중개업자의 비용삭감에도 힘을 쓰고 있다(海外職業訓練協會, 4-5:2009).

1980 년대에 태국은 고도경제발전을 달성하여 그와 동시에 해외 노동인력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적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지역간 격차를 들 수 있는데,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공업이나 서비스업에 기반한 도시지역과 농업에 기반을 둔 농촌의 격차이다. 지역간 격차는 방콕과 지방의 격차로 나타났다. 태국의 국내이동에서 국제이동으로 변화된 배경은 이러한 경제적인 불균형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태국 내에서 농촌과 도시의 경제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금수입을 얻는 수단으로서 국내이주노동이 활발해져 도시로 돈을 벌러 가거나 공업단지로 일을 하러

가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점점 도시와 격차를 줄여가면서 먹고 살기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으나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선진국에 취업을 하여 수입을 늘리려고 하였다(百瀬, 21:2006). 두 번째는 태국에서 생활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 빈곤 속에 사는 상황에서 해외로 떠나는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노동자들에게서 현저히 드러나며, 김해시 거주 태국인 노동자들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인 노동자의 교육배경은 과반수가 초등학교 4 학년이상 과정을 수료하였다. 노동자의 대부분이 생산현장, 기술직, 수송기계운전, 육체노동에 종사한다.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업무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사무, 영업, 서비스업은 적은 상황이다(労働政策研究·研究機構 10:2009).

태국노동자는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중동에 1990년대에는 대만, 일본, 싱가포르에 송출되었다. 199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민과정 변천에 있어서, 즉 이민 송출국에서 이민 도입국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178:2011). 1990년대 초에는 1988년을 시작으로 이전 노동자 수의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5년 이후 태국을 떠나 해외에 취업한 노동자는 202,296명, 1996년에는 185,436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7년에는 183,761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였다. 이 시기는 태국의 경제위기(IMF)와 겹치는 시기로 부동산 붕괴위기와 동시에 경제위기도 맞아 정부 지출의 삭감과 이자율의 인상 등이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로 인해 태국경제는 붕괴되어 많은 기업이 도산하였다. 그 기업들에서 해고를 당한 실업자가 증가하여 해외로 송출되는 노동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經濟社会総合研究所: 46).

2005년의 태국인 노동자 해외 취업에 관한 정책은 중개업자에 의해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태국인 해외 취업자는 세계 주요 경제지역에 취업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아시아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취업자수는 148,000명이었으며, 취업한 국가는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순이었고, 한국에는 40,000명이 취업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의 경향을 비교

하면 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일본 순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海外職業訓練協會, 7:2009).

태국의 외국인 노동자 상황을 보면 노동력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의 제조업분야에서 노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임금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태국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값싼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 노선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부족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 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출신이며, 2,000,000명이 넘는 불법노동자는 태국정부에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등록노동자(registered workers)라고 불리며, 2011년에 2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5월에 재등록을 실시하여 1년간의 연장을 허가하였다(日本総研, 2011). 등록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 노동자이며, 태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태국인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다. 이는 태국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태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노동자 임금을 보면 한 달에 한국은868달러, 태국은241달러, 미얀마는16달러로, 한국은 태국의 3~4배 많고, 태국은 미얀마의 15배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태국에서 유출되는 노동자와 유입되는 노동자를 살펴보면 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상승하지 않은 노동시장환경과 임금 때문에 태국인 노동자는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해외로 향하는 것이다(JETRO, 2013).

Ⅲ. 예비조사

1. 조사방법

1장과 2장의 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판단에 따라 이민시스템론을 가져와 조사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민시스템론의 특징은 이동이나 정착화의 이유를 개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과정 속에서 연속적인 반복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주과정은 「이민발생, 정착, 귀환, 그리고 이러한 순환의 확립」을 의미한다. 설명변수로서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연결되는 일련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강조한다(樋口, 55:2002). 이 접근은 종래의 개인선택이나 거시적인 정치경제구조에 의해 규정된 이민현상의 이해를 넘어 중간적인 사회조직이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국가를 초월한 사회관계의 자체조직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김해 재래시장과 그 주변의 외국인 거리 등으로 오는 외국인 노동자 중 태국 사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주를 촉진하고 장기화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예비조사로서 김해시청에 가서 김해 재래시장과 그 주변 상권 현황과 외국인노동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그 예비조사를 토대로 김해 재래시장과 그 주변의 외국인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지역의 태국식당에서 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였다. 다음은 김해외국인력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의 배경 또는 그 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담당자와 인터뷰하였다. 김해 재래시장과 외국인거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표면적인 부분에는 접근이 가능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는 표면적인 인간관계에 국한되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는 인터뷰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태국인 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50장 전량을 회수하였다. 내용은 20항목, 일문일답식으로 작성하였고, 설문지는 태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일요일의 점심시간에 외국인 거리에서 통역을 통하여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태국식당에서 실시하였으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충분한 인터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필자 역시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조사 목적을 뚜렷이 밝히고, 이미 7년간 정착해 있는 태국결혼이민자의 도움을 받았다. 이 여성은 태국노동자 중 친구나 지인들이 많아서 비교적 경계심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가. 대상자의 범위 선정

김해 재래시장은 아직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지역이지만 현재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김해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치면 2만명에서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태국인 노동자의 수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해시청 담당자 설명).

또한 역사가 길고 한국 내 노동시장의 경험도 많아 본 논문의 조사집단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설문조사는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태국 음식점에 협조를 얻어, 주말이면 태국음식을 이용하는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하였다.

나. 설문조사 및 인터뷰의 실시

조사의 첫 단계로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선택방식을 기본으로 하였고, 항목은 20개로써 해당항목은 한 개만 선택하는 단일해답으로 하였다. 2011년 9월18일 일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평소보다 태국인들이 적어 위에서 언급한 태국식당에 가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 때, 설문 응답자들이 태국인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고 당일 가능한 인원은 15명이었으

며 회수한 설문지 역시 모두 15장이었다. 나머지는 태국식당 주인에게 부탁하여 당일 저녁 태국인의 모임에서 설문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회수한 설문지는 모두 35장이었다. 따라서 처음에 계획했던 50장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김해시청 담당자에 의하면 외국인거리가 형성되면서 같은 나라 사람끼리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외국인거리에서 각 나라마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민시스템론에서는 가족이나 커뮤니티는 이민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며, 이민 네트워크는 현지에서의 커뮤니티형성이나 정착과정을 촉진한다. 따라서 본 설문은 가족관계나 개인을 둘러싼 인간관계, 또는 이민 사이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예비조사

Q1. 주거형태 1.회사에서 제공된 주거에 거주 2.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주 3.지인의 소개 4.한국인의 소개	Q11. 사이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1.하고 있다 2.하려고 한다 3.안 한다 Q11에서 1.하고 있다가 응답 한 분만
Q2.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1.혼자 2.배우자 3.자녀 4.부모 5.형제 6.친척 5.형제 6.친척 7.친구 8.기타	Q12. 누구랑 합니까? 1.같은 나라 사람들과 2.다른 나라 사람들과 3.가족과 4.기타
Q3. 가족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1.따로따로 산업여수 또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하여 2.먼저 한 사람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고,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3.한국에 와서 결혼했다 4.아이는 모국에 있고 부부만 한국에 있다 5.기타	Q13. 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합니까? 1.노동자센터 2.종교시설 3.김해시청 4.기타
Q4. 모국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	Q14.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합니까? 1.참가한다 2.가끔 참가한다 3.참가하지 않는다
Q5 본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1.동료 2.같은 나라 사람들 3.다른 외국인들 4.한국인	Q15.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1.없다 2.없지만 지인은 있다 3.없다
Q6.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1.같은 나라 사람들 2.같은 나라의 같은 고향 사람들 3.한국에서 만난 사람 4.인터넷으로 만난 사람	Q16. 한국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1.좋다 2.보통 3.좋지 않다
Q7. 같은 나라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합	Q17. 한국인 친구(지인)과 어떤 활동

니까? ()	을 합니까? 1.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2.비즈니스 3.기타
Q8.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합니까? ()	Q18.연령(세), 성별 남•여
Q9. 직종 1.제조업 2.식품가공품 3.소매 4.식당 5.기타	Q19. 한국에 몇 년 체류했습니까? (년 개월)
Q10. 수입은 충분합니까? 1.충분하다 2.충분하지 않다	Q20. 앞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고 싶습니까? 1.1년 이내 2.2년 3.3년 4.4년 이상



2. 자료분석

설문조사에 응답한 50 명의 태국인 노동자는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연령, 성별, 직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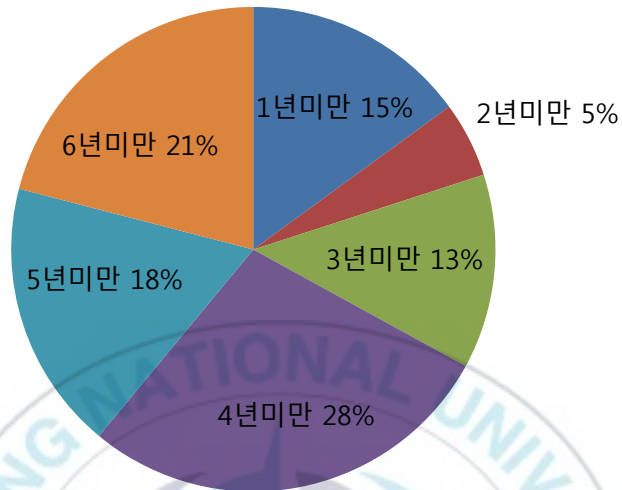
첫 번째로 연령구성은 2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은 46%인데 이는 태국 해외노동고용관리국의 통계수치³에서 밝힌 전체해외노동자 중 20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27%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30대가 12명으로 24%, 40대가 15명으로 30%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성별은 현재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동반을 제한함에 따라 남성 노동자가 94%, 여성 노동자가 6%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직종은 제조업이 84%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식품가공업이 14%, 소매가 2%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태국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제조업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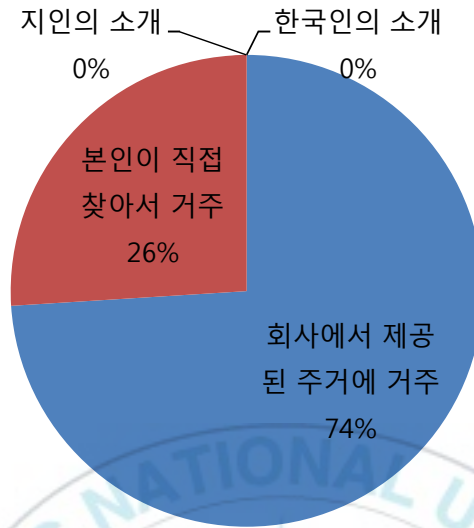
³ 태국 해외노동고용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태국인 노동자의 연령분포는 25~44세가 대다수이다. 그 중에서도 30~34세가 가장 많고, 이어서 35~39세, 25~29세 순이다. 50세를 넘어서 일을 구하러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아주 적다. 2007년의 자료에 따르면 20~24세는 1만3,681명(8%), 25~29세는 30,802명(19%), 30~34세는 37,787명(23%), 35~39세는 36,977명(22%), 40~44세는 25,177명(15%), 45세 이상은 2만 명 이상(12%)순이다(海外職業訓練協會, 10:2009).

<도표 4> 한국 체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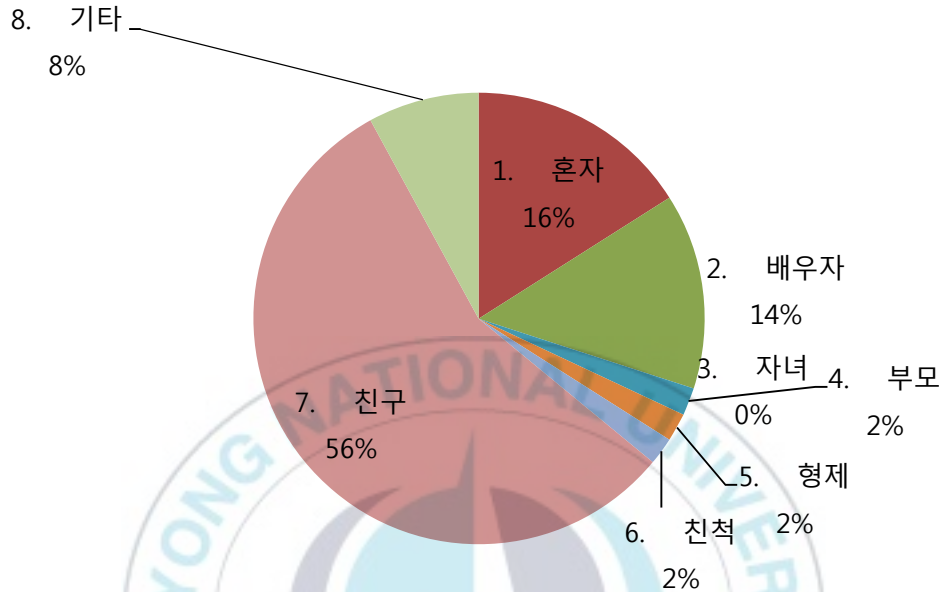
체류기간은 고용허가제에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체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주가 원하면 1년 10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미만 18% 중에는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보면 4년 미만 28%, 5년 미만 18%, 6년 미만 21%로 4년 이상 6년 미만은 전체의 67%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3년 미만 13%, 2년 미만 5%, 1년 미만 15%로 3년 미만은 전체의 33%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태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자 비율이 더 높다는 것으로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도표 5〉 주거형태



응답자의 주거형태는 회사에서 제공된 주거지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37명인 74%로 가장 많고,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주한다는 응답이 13명으로 26%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주거지를 찾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체류년수를 보면 2년 미만 1명, 4년 미만 1명, 5년 미만 4명, 6년 미만 7명으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류년수가 길수록 직접 찾아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있으면 회사에서 제공된 장소에 거주할 수가 없어서 직접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혼자서 찾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한국인 도움을 받아서 집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태국인 노동자). 이런 경우는 회사측에서 계약금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월세는 회사와 외국인 노동자가 50%씩 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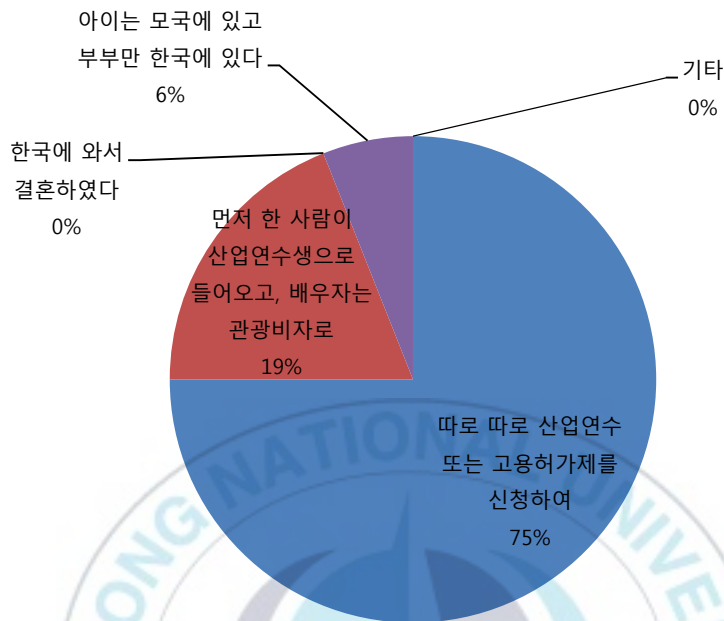
<도표 6> 동거자



동거인은 친구가 56%로 가장 많았고, 혼자 16%로 합해서 72%로 나타난다. 주거형태에서 보듯이 회사에서 제공된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가 78%로 거의 일치한다. 주거형태에서 나타난 본인이 직접 찾아서 주거하는 경우인 26%와 가족과의 동거내역으로 나타난 배우자와 동거중인 14%와 부모, 형제, 친척과 동거중인 2%를 합한 20%와도 거의 일치한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거주 중이라고 답한 26% 중 누구와 같이 사는지를 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6명, 혼자 3명, 친구 3명, 친척 1명이었다.

<도표 7> 가족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가족(배우자)을 어떻게 이루었는가에 대한 응답자는 22명이다. 따로따로 산업연수 또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하여가 75%로 가장 많았다. 먼저 한 사람이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고,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19%였다. 아이는 모국에 있고 부부만 한국에 있다는 6%로 나타났다.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였다는 아무도 없었다.

김해시의 외국인 노동자 기존연구에 의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체류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형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결합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나금실, 김희재, 최송식, 74:2010).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족생활은 가족동반금지라는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따로따로 들어오거나 시간차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수가 적고, 많은 업종에서 일손부족의 해소가 어렵다. 연수생은 불충분한 법적 보호, 열악한 노동조건, 중개업자에 지불한 수수료로 인해 허가 받지 못한 이직을 하여 불법체류자로 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2000년에 폐지되었다. 단 중소기업층의 의향을 존중하여 2007년까지 고용허가제와 같이 실시되었다.

〈표 5〉 동거인과 체류년수

(단위: 명)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합계
혼자	5	2	2	2			1	12
배우자			1	1	2	3	3	10
자녀								0
부모	1							1
형제						1		1
친척					1			1
친구	3	1	3	3	4	6	2	22
기타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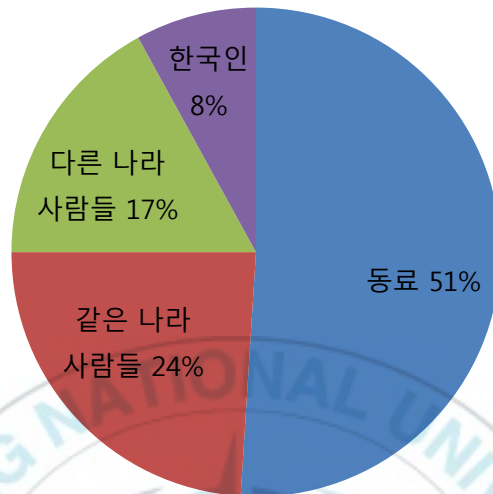
동거인과 체류년수의 관계를 보면 응답자의 동거인 중에 제일 많은 친구의 체류년수는 1년 미만에서 7년 미만까지 고르게 나타났다. 혼자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비교적 단기체류가 많은 한편, 배우자랑 동거하는 사람은 비교적 장기 체류가 많았다. 이것은 이민시스템론으로 설명하면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때 처음에 들어온 이민자가 배우자나 아이를 불러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민자는 이주국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표 6> 모국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1	가족				
2	가족				
3	가족				
4	가족				
5	가족				
6	가족				
7	아빠	엄마	남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8	아빠	엄마	여동생	아들	
9	아빠	엄마	형	남동생	
10	아빠	엄마	형	동생	
11	아빠	엄마	형	동생	
12	아빠	엄마	형	부인	
13	아빠	엄마	누나		
14	아빠	엄마	여동생		
15	아빠	엄마	여동생		
16	아빠	엄마	할아버지		
17	아빠	엄마			
18	엄마	동생	형	부인	
19	엄마	손자			
20	엄마	아들			
21	부인	자식			

<표6>에서는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50명 중 21명이 해답을 하였고, 29명은 무응답이었다. 21명 중 6명은 가족이라는 응답이었다. 부모님과 형제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사는 대가족은 1명밖에 없었다. 부인과 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2명이었다. 예상과 달리 핵가족이 많았다. 이 결과로 보면 미혼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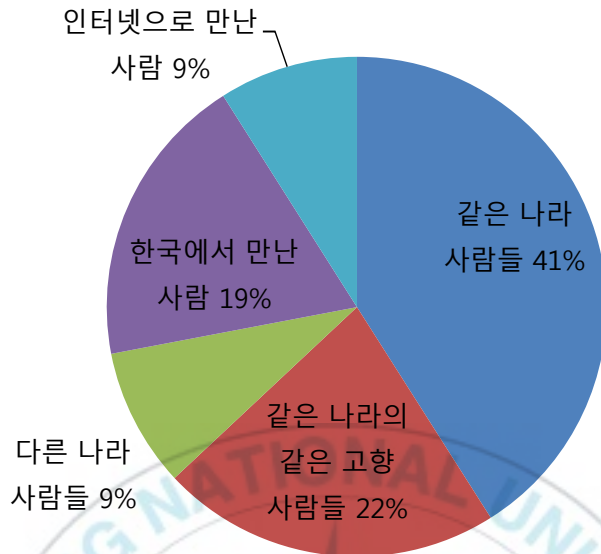
<도표 8> 본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본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에서는 동료가 51%로 나타나고, 같은 나라 사람들은 24%, 다른 외국인들은 17% 그리고 한국인은 8%였다.

일반적인 현상일수는 있겠으나 이 질문으로 통해 본 태국인들은 직장동료와 자국인에 비해 동료가 아닌 한국인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궁금하여 개인별 인터뷰시에 따로 질문을 하였다. 동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태국인은 태국인 동료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이는 총 75%의 응답문항 1번과 2번이 전부 태국인으로 이해하고 응답한 것으로 이해되며 주위에는 대부분 태국인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9>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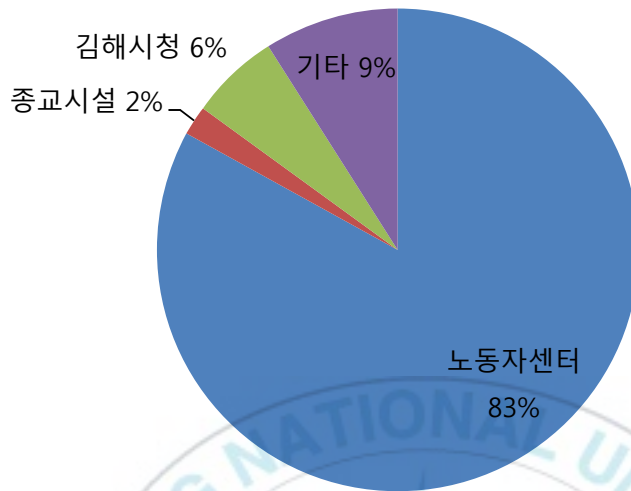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는가는 같은 나라 사람들 41%, 같은 나라의 같은 고향 사람들 22%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은 19%,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은 9%도 같은 나라 사람일수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된다. 다른 나라 사람은 9%로 적게 나타났다.

Q7, Q8는 주관식으로 질문하였다. 응답자는 50명 중 19명이었다. 같은 나라 사람과 어떤 활동을 하는가의 질문에서는 식사, 요리, 축구가 많았다. 여행, 취미활동, 연주 미팅도 소수 있었다. 또한 한국은 일만 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일 이외의 활동도 하며 즐기는 사람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과는 일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축구, 식사가 그 다음 순이었고 낚시, 산책, 여행도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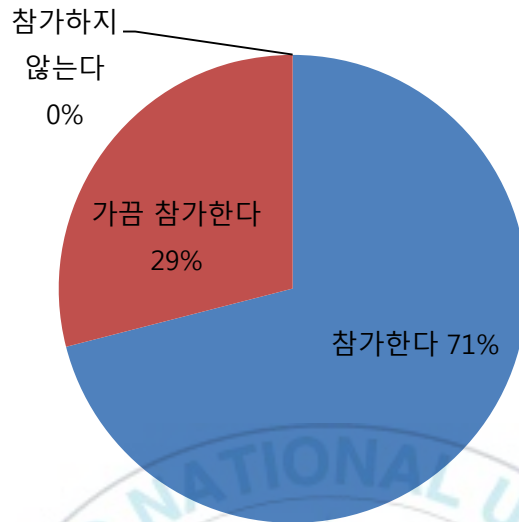
다른 나라 사람과는 주로 일로만 같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같은 직장에서도 서로 다른 외국인 노동자끼리 의사소통문제가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표 10> 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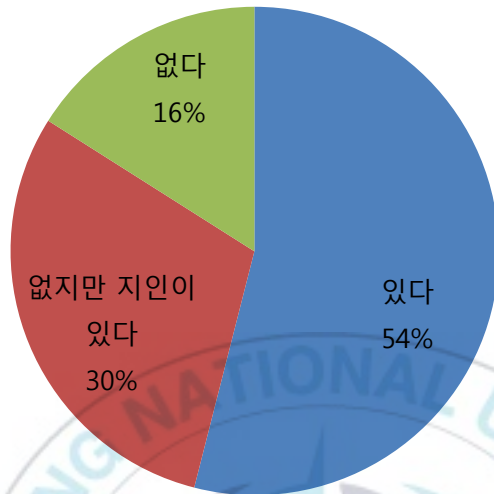
주로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가는 노동자센터가 83%, 김해시청은 6%, 종교시설은 2%, 기타9%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노동자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내에 위치한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는 15개국의 상담실, 한국어, 컴퓨터, 합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수강료 및 교제비를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무료 미용실, 진료실, 각국의 도서와 시청각자료를 비치한 다문화도서관도 갖추어져있어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센터를 이용한다고 한다. 필자가 여러번 같은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의 담당자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모두 합법체류자이며, 불법체류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는 센터 이용에 제약이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도표 11>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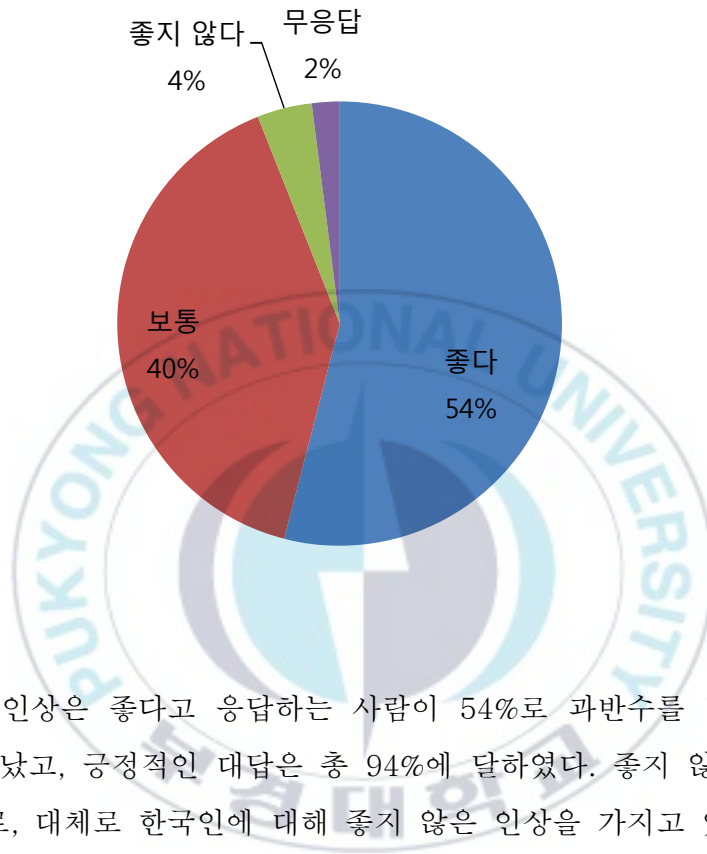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명절행사, 송년행사, 체육행사등을 개최하고 있다. 참가하는 사람은 71%로 많았고, 가끔 참가한다는 29%, 참가하지 않는다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류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2>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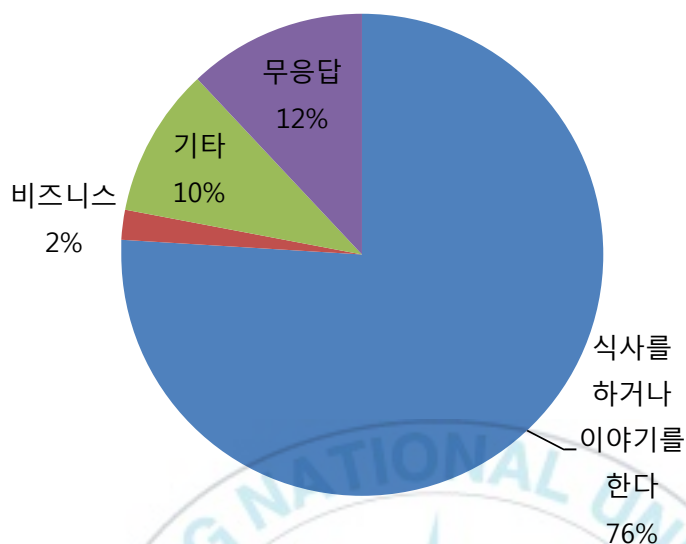
한국인 친구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54%, 없지만 지인이 있다가 30%, 없다가 30%였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표 13> 한국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인상은 좋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54%로 과반수를 넘었다. 보통도 40%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대답은 총 94%에 달하였다. 좋지 않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4%로, 대체로 한국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4> 한국인 친구(지인)과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한국인 친구(지인)과 어떤 활동을 하는가는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가 76%로 제일 많았고, 비즈니스는 2%에 그쳤다. 기타에서는 같이 일을 한다, 낚시라는 응답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체적인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표 7> 한국인친구 유무와 희망체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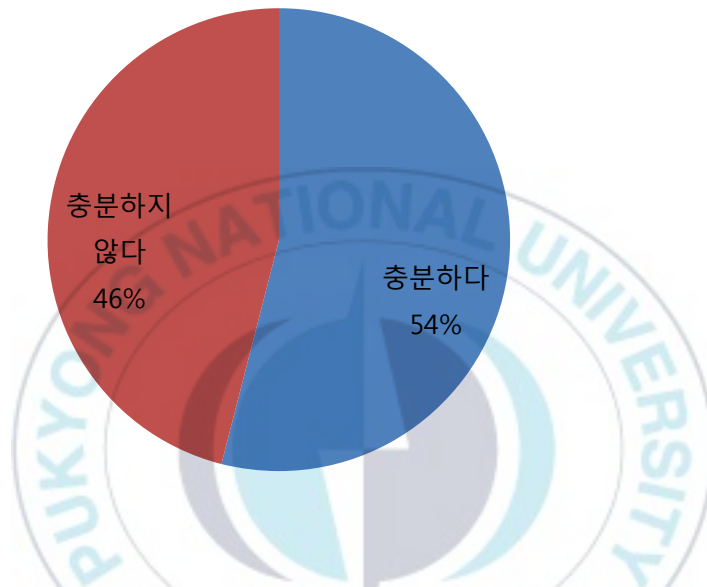
(단위 : 명)

	1 년 이내	2 년	3 년	4 년 이상	합계
있다	7	3	5	12	27
없지만 지인이 있다	6	1	3	5	15
없다	1	1	3	3	8
합계	14	5	11	20	50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지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모두 희망체류기간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인 친구가 있는 사람 중 희망체류기간이 4년 이상은 12명

으로 제일 많았다. 희망체류기간에는 한국인친구 유무가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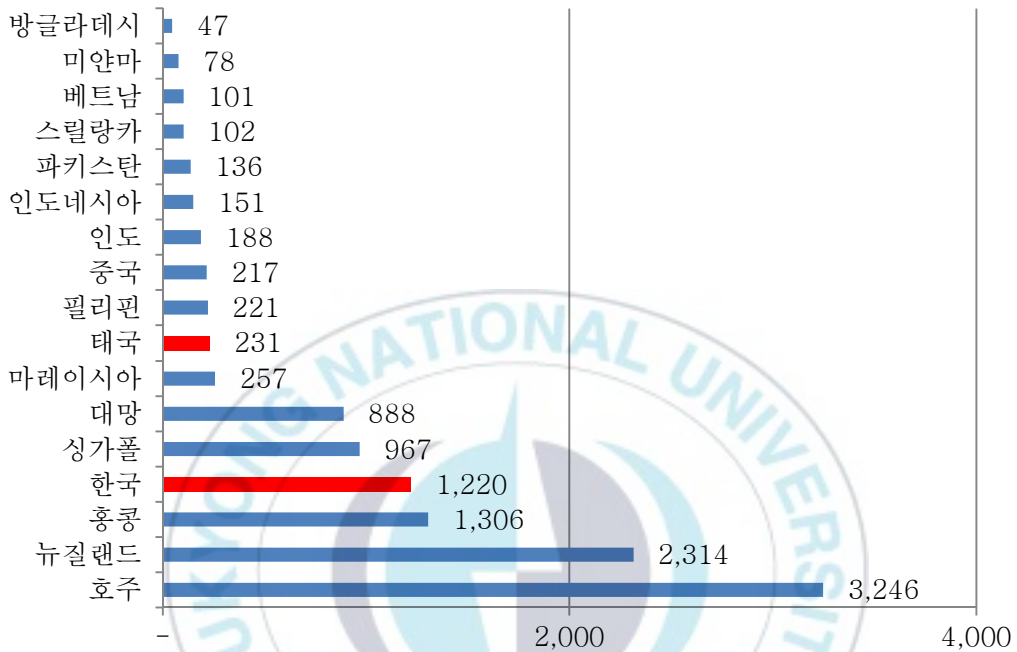
〈도표 15〉 수입은 충분합니까?



수입은 충분한가라는 설문조사에서는 충분하다가 54%, 충분하지 않다가 46%로 나타났다. 한국은 태국에 비해 소득이 4~5배 많아 충분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54%에 불과하다. 개별 인터뷰시에 몇몇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태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으며 송금하고 남은 아주 적은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도표 16> 제조업 임금 비교

단위: 달러



출처: JETRO.2010에서 필자작성

<표 8> 수입과 희망체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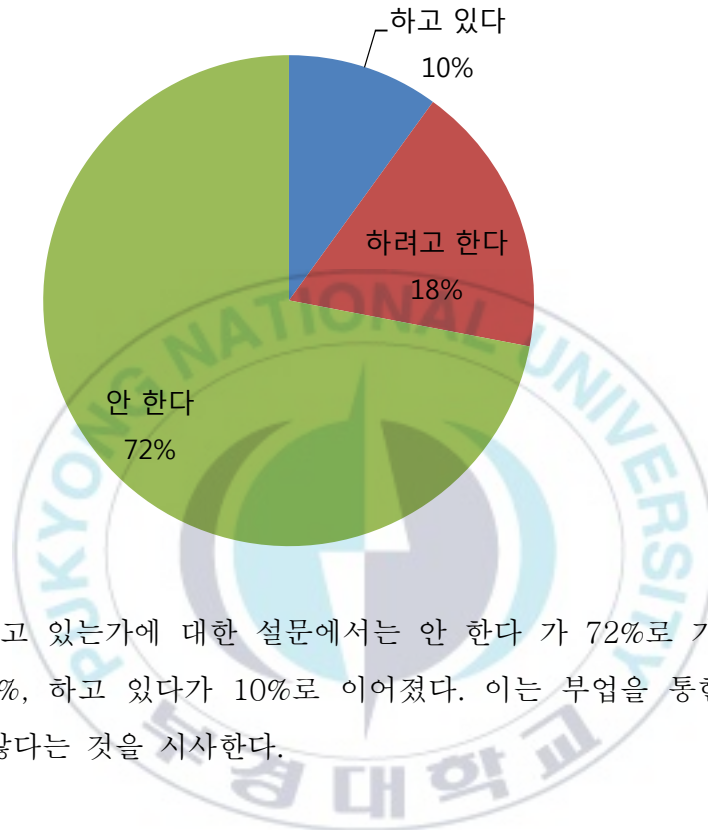
	1 년이내	2 년이내	3 년이내	4 년이상	합계
수입이 충분하다	12	4	6	5	27
충분하지 않다	2	1	5	15	23

수입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50명중 27명이었다. 희망체류기간 1년 이내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50명중 23명이었다. 희망체류기간 4년 이상이 15명, 3년 이내 5명, 2년 이내 1명, 1년 이내는 2명으로 적게 나타났다. 수입이 충분하면 돈을 번 목적을 달성하며 빠른 시기에 귀국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위해 장기체류를 희망하거나 이직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다.

<도표 17> 부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안 한다 가 72%로 가장 많고, 하려고 한다 18%, 하고 있다가 10%로 이어졌다. 이는 부업을 통한 인적 연결이 활발 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9〉 부업을 누구랑 합니까?

(단위: 명)

	같은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사람	가족	기타	합계
하고 있다		5			5
하려고 한다	5	2	2		9
안 한다					0

부업을 하는 사람 중 누구랑 하는지를 알아보면 부업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과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과 5명, 다른 나라 사람 가족 각각 2명이었다.

〈도표 17〉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 체류년수 별 내역을 보면 1년 이상, 2년 이상은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3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은 각각 1명이었다. 체류기간이 1, 2년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고, 부업을 할 정도 주위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아져 부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은 없고, 2년 이상은 2명, 4년 이상은 1명, 5년 이상은 3명이었다. 첫 해는 하는 일이나 한국생활 적응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예비조사 결과에서 태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요인으로서 보이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인간관계활동을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가 되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을 불러서 정착하는 경우이다. 설문조사에서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의 항목을 보면 친구는 56%, 혼자는 16%이며, 가족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동거인과 체류년수를 비교해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경우 체류년수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서는 친구와 사는 사람이 56%, 혼자 사는 사람 중 모국에 아내나 자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부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3명, 나머지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라는 답이 많아 미혼자가 많다고 본다. 주거형태를 보아 회사에서 제공된 집에 사는 사람이 78%로 이는 단신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가족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라는 설문의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은 50명 중 22명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각자가 산업연수제도 또는 고용허가제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75%, 먼저 한 사람이 들어오고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19%로 나타났다. 이는 태국에서부터 결혼해서 오는 사람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료이거나 같은 나라 사람들이며,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나라의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태국인 동료나 친구 커뮤니티 속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나라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가'라는 설문에서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떤 활동을 하는가'라는 설문에서는 주로 일을 같이 한다는 답이 많아, 개인적인 교류는 비교적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태국인 노동자가 이용하는 기관은 노동자센터가 83%로 가장 많고, 이는 행사 참가, 배움터 도서관 이용 등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자센터에서는 다른 회사에 다니는 태국인도 만날 수 있어 정보교환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노동자센터에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거리 등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정보교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인 친구가 있다'가 54%, '한국인 인상이 좋다'가 과반수를 넘지만, 태국인이랑 한국인이 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한국인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한다가 76%로 많은데, 태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노동자센터

나 외국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인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 보인다. 회사에 있는 한국인과 식사를 하거나 회식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보인다.

합법체류자의 경우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각종 행사나 강좌를 통해 한국인과 교류는 있으나, 한국인과 관계는 회사나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제한적이다. 오히려 한국인과의 관계가 제한적이고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다 라는 응답이 많을 수도 있다. 독일의 터키이민자와의 사례를 보면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 속에서 교류하는 기회가 많을 수록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樽本 188:2009). 즉 도입국 국민과 이민 사이에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하거나 식사를 하는 정도이면 독일과 같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커뮤니티 속에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있는 사람들은 부업을 하고 있거나 부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써 한국에서 체류장기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체류장기화를 하면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면 추후 한국인과의 갈등이 점점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입은 충분하지 않는데 한국에 더 살고 싶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직이나 부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업을 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다. 수입이 충분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태국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장기간 체류할수록 송금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고 약간의 저축이 가능하기도 하여 비록 한국에서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태국보다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결혼상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태국인 노동자가 태국식당이나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행사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결혼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국인 노동자가 식당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결혼상대를 찾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다 수입이 높은 직장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쉽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 현재 수입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더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건이 좋은 회사의 정보를 수집해서 실제로 이직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부업의 기회가 많아 진다는 것인데 이는 체류기간과 관련이 크다. 따라서 합법체류자의 경우는 정해진 취업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부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부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부업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IV. 본론

1. 가설설정

제3장의 예비조사 결과에서 (1)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결혼상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2)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다 수입이 높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다. 그리고 (3)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부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가설을 세웠다. 제3장 예비조사 분석결과에서 분명하게 두드러진 항목은 결혼, 수입, 부업이었다. 첫 번째로 결혼에 관해서는 태국에서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에 들어와 자국 커뮤니티 속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수입에 대한 결과로써 수입은 충분하지 않은데 더 체류를 희망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즉,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더 나은 수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업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길어지게 된 태국 노동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부업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 보듯이 태국 노동자들은 자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들이 어떻게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태국인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민 시스템론에서 설명하는 상호부조형(相互扶助型) 이주시스템 이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이주의 필요한 자원의 거래가 인간관계의 상호보상이라는 뜻으로 「오래 사귀는 상대와의 「상호부조관계」를 가리키며, 사회적자본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다. 상호부조형 이주시스템이라는 원리로 인해 기능하며,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형성된다고 한다(梶田, 丹野, 樋口, 79:2005).

이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이유는 푸시풀(push=pull)이론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시풀(push=pull)이론은 인구 과밀 지역에서 인구 과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지만, 태국보다 한국이 인구 과밀 상태인 것을 볼 때 해당되지 않는다. 기술이민과 같이 개인의 능력에 맞는 기회와 보답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국을 떠나 해외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고도기능이민의 이동은 푸시풀(push=pull)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는 임금 격차는 이민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제조건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이민의 유출과 유입을 설명하지 못한다. 임금이 높은 곳에 자동적으로 이민이 유입된다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이민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는 소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문을 풀어나가려면 임금격차 이외의 요인에 주시해야 한다. 송출국과 도입국에 걸쳐서 사회적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으로 이민을 설명하는 것이 이민시스템론이다(Ibid, 79:2005). 이 이론은 이주한 곳에서 보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기대감 또는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 보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체류기간의 장기화를 설명할 때 분석하기 적절한 이론으로 생각한다.

본론에서 태국인 노동자 장기체류는 합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재입국한 노동자를 포함하고,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체류 7년 이상으로 정의한다. 제3장의 예비조사의 결과로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구별할 수는 없었으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이나 동료라는 것을 보면 한국인과의 교류는 미미하고 자국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1) 결혼상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2) 보다 좋은 수입이 높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다. (3) 부업에 기회가 많아진다는 가설을 세워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본 조사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비조사 결과에서 (1)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결혼상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2)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다 수입이 높은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다. 그리고 (3)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부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했는데 (1)은 실제로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결혼까지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2)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수입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를 인터뷰하였다. (3)은 부업을 하게 된 계기와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태국식당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태국식당을 주목하는 이유는 김해시 거주 태국인 노동자가 모이는 장소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민시스템론에 의해 가족이나 친척, 고향사람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조사는 2015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실시하였다.

가. 결혼

설문조사 결과에서 각자 고용허가제를 신청해서 들어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75%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태국 식당 관계자들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즉, 가족을 불러서 사는 것 보다 한국에 와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와서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결혼하게 되었는지 물었는데 친구 소개를 받고 결혼하는 경우, 태국 식당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두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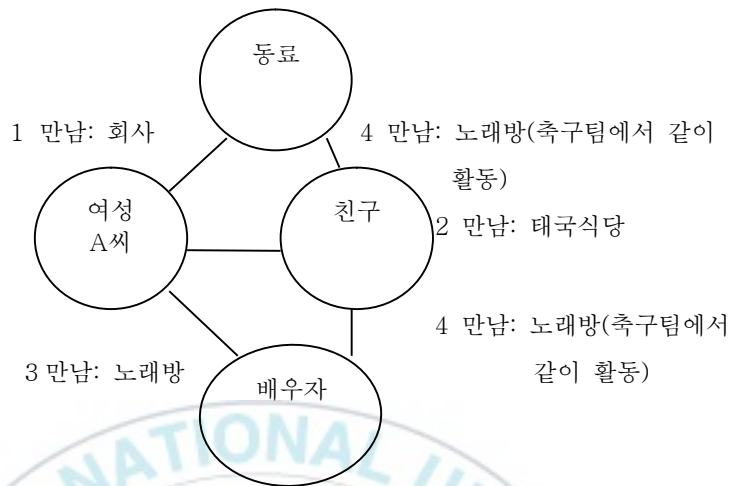
사례 1) 국수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태국여성 A 씨는 4 년 정도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며 동료들과 자주 태국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그 식당에서 만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태국인 전용 노래방이 있다.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도 생일잔치 등 행사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곳에서 만나 친해져 결혼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그 중 남자들은 축구팀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 팀과 시합을 하기도 한다. 여자들은 응원단을 만들어 시합 있을 때 마다 응원도 하고 요리도 같이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국에 와서 국수공장을 다녀요. 친구 생일잔치에서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생일잔치 때 친구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하고 태국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친구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같이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면서 친구들이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축구도 하는데 응원하러 갔었어요. 소개받고 나서 몇 개월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태국여성 A 씨, 30 대, 인터뷰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A씨는 친구의 생일잔치가 열린 노래방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지금의 남편을 소개한 사람은 직장동료로서 평소에 같이 식사도하고 노래방에도 놀러 가는 등 비교적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지금의 남편과 남편을 소개한 직장동료도 노래방에서 만나 친구가 된 사이라고 한다. A씨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은 후 몇 개월간 사귀는 과정에 서로간의 외로움을 공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져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표 18> 네트워크 전개도



(1~4 은 네트워크가 확대하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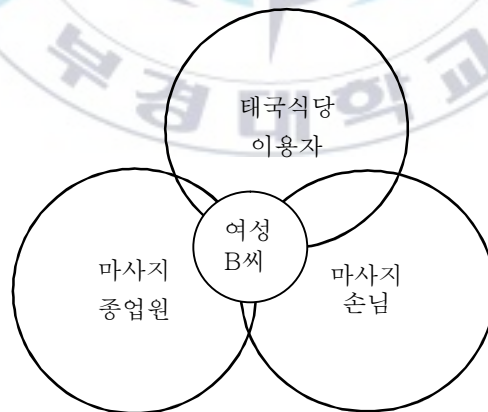
위 사례는 합법체류자가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과정에 의해 결혼상대를 만나는 기회가 증가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례는 직장과 태국식당에서 점점 가까워진 후 만들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결혼상대를 찾는 사례이다.

사례2) 이 사례는 네트워크 확대에 제한적인 태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결혼상대를 찾았는지를 보여준다. 태국식당에 자주 오는 태국여성B씨는 마사지 일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과 태국 간에는 3개월 비자 면제가 있어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불법체류자로 지내고 있다. 3개월의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태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비행기 값으로 번 돈을 다 쓰게 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체류하게 되었다. 이 사례의 B씨는 손님으로 온 태국남성과 결혼을 하였다.

“태국 식당에서 온 태국남성하고 점점 친해졌어요. 마사지도 받으러 오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결혼했어요.” (태국여성 B 씨, 30 대)

B씨와 같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태국 여성들은 보통 5~6년 정도 체류한다. 이 여성들은 태국에 있는 알선업체에서 소개를 받아 한국에 왔다. 마사지 업체의 특성상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 직장 동료도 비교적 자주 바뀌는 직업이다. 마사지실에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손님이 없을 때 일이 없는 동료와 태국식당에서 잠시 쉬기도 한다. 직장에서 멀리는 못 가니까 가까운 태국식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손님은 한국인이 많지만 태국인도 가끔씩 찾아온다. 손님으로 온 현재의 남편은 같은 태국인이라 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위로도 되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두 번 밖에 없어 일이 없을 때는 주로 태국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태국 식당에서도 현재의 남편과 두 세 번 만나고 나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 시간이 있을 때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면서 더 친해졌다. 남편과 동료들도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친구가 되었다. 남편도 농가에서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불법체류자라는 입장이 같은 상황이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서로 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도표 19>



첫 번째 사례는 친구를 소개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인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통해 모임에 참가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주 보면서 네

트워크를 확대하는 모습이었다. 이민시스템론에서는 상호부조형 이주시스템과 시장매개형 시스템이라는 두 이념으로 나누고 있다. 이 사례는 상호부조형 시스템으로 설명된다. 노래방, 축구시합, 생일 잔치 등 각종 행사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부조 관계를 확립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목적만 아니고 생일잔치, 식사를 하는 장소 등 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을 마치고 난 뒤나 주말에 이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주 보게 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다. 노래방에서 모이는 것을 시작으로 축구시합, 다른 여가활동으로 확대되어 서로간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오래 사귀는 상대와의 상호부조관계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기반이 된다고 한다(梶田, 丹野, 樋口, 79:2005). 노래방이란 장소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곳이고 결혼상대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불법체류자인데 직장에서 태국인 네트워크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태국인이 모이는 식당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 여성은 24시간 일을 위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혀 갈 수 없다. 그러나 태국식당에서 마사지 종업원, 손님, 태국식당에 오는 태국인을 자주 보면서 친밀도를 높이게 된다. 한정된 장소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히려 신뢰가 쌓여서 유대관계가 더 깊어져서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이 된 것이다. 상호부조시스템에서 사회적 자본은 일이나 주거, 생활상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 상대를 찾는 것 또한 용이하게 한다고 본다.

나. 수입

수입은 예비조사 결과에서 충분하다가 54%, 충분하지 않다가 46%로 응답이 거의 반반이었다. 수입이 충분한 사람들은 250~300만원을 받고 있고 여행, 쇼핑도 즐길 여유가 있었다. 합법체류자의 경우 태국식당에 방문하며 식당주인이

나 태국결혼이민자 혹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좋은 회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 노동부에 간다고 한다. 100~150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체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떠나기 전에 50%, 한국으로 입국한 뒤 50%를 받는다. 태국식당의 업주에 의하면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은 이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요즘에는 700~800만원 지불한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 보다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법체류자는 태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고 오지만 불법체류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이직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태국보다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친구 지인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정보 수집을 하는 사람도 있다. 다음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서 직장 취업소개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이나 노동조건이 나은 일을 찾으려 하는 사례이다.

사례1) 불법체류자로 자동차부품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35세 남성C씨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어서 너무 힘들어 보였다. 중개업자에 800만원을 주고 들어온 뒤 먼저 한국에 들어온 친구 소개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친구는 다른 공장에서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다. 회사에는 태국인 동료도 없어서 주로 태국식당에 가서 태국인사장님에게 상담을 한다.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직을 원하지만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태국식당에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만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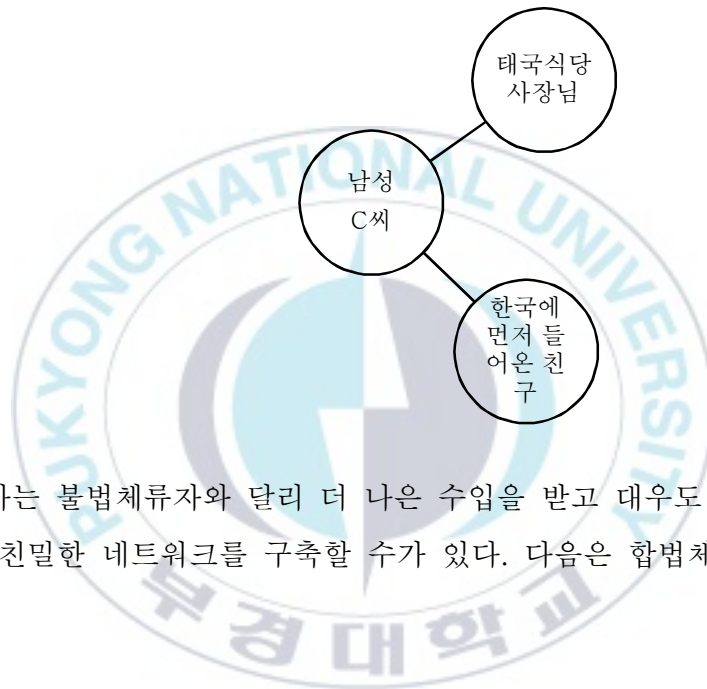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소개받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친구는 별로 없고 식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태국남성 C 씨, 20 대)

최초근로계약이 근로자 동의 하에 만일3년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근로 기간 3년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단, 외국인근로자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최초 3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과도한 노동시간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기회조차 없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 더구나 불법체류란 이유로 이직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C씨는 이직을 하고 싶을 때는 식당 사장님에게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식당 사장님은 합법체류자의 경우 노동부에 같이 가서 일을 찾아 줄 수는 있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 다른 회사를 소개하고 싶어도 대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다.

이민시스템론에서는 커뮤니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구성원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일이나 주거,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위 사례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梶田, 丹野, 樋口, 78:2005). 그러나 이 남성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가진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의존해야 하며 경제적 자본도 인적 자본도 없다. 경제적 자본(돈), 인적 자본(학벌이나 기술)이 없이 사회적 자본만 있어도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Ibid, 78:2005) 서론에서 언급한 불법체류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 한계가 있다. 프랑스의 Pierre Bourdieu는 문화자본이 사람관계에서 더 높은 계층의 인적 네트워크와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자본이 인맥이라고 하여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게 되면 진학이나 취업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日下部 20:2016).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한국어와 같은 문화자본이 적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충분히 축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태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속에서 불법체류자의 사회적 위치는 합법체류자 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와 접하는 기회가 비교적 적고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같

은 공공기관을 통해 인맥을 넓히는 기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 역시 적다고 할 수 있다.

<도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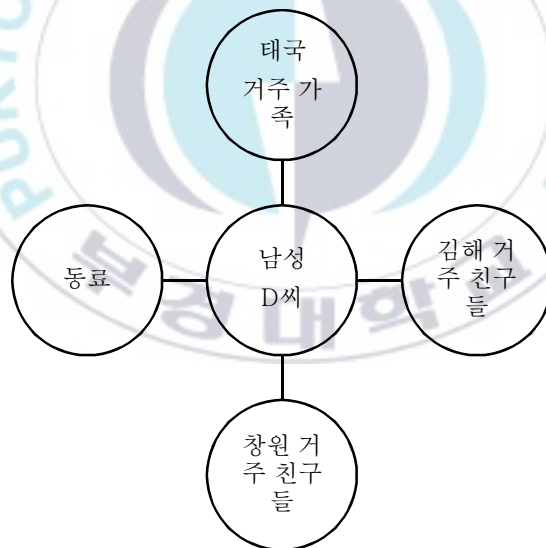
합법체류자는 불법체류자와 달리 더 나은 수입을 받고 대우도 양호해서 보다 광범위하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다. 다음은 합법체류자의 사례이다.

사례2) 합법체류자인 남성D씨는 38세이며, 8년째 체류하고 있다. 태국에 아내와 아들이 있다. 태국인 친구는 김해, 창원에 많지만, 자주 만나는 친구는 5~6명 정도이다. 서로의 회사 대우, 월급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회사에는 태국인 노동자와 인도네시아노동자가 있지만,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아서 거의 개인적인 교류가 없다. 인도네시아인과는 회사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이다. 월급은 300만원 받고 있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쓴다.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돈도 시간도 여유가 생겨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제일 친한 태국 친구와 취미생활로

여행을 같이 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와 만나는 기회도 많아져 네트워크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해서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다녔고 아직 가보지 않은 곳도 많아서 친구와 시간이 날 때 마다 여행을 할 계획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나라로 여행도 가보고 싶어한다. 2012년7월1일부터 같은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우수 노동자는 재입국 절차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D씨도 근무 우수자로 4년10개월을 채우고 재입국한 경우이다.

“오래 살아서 친구가 많지만 회사를 같이 다니는 동료는 제일 친해요. 다른 친구하고는 주말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제일 친한 친구하고는 여행을 다녀요.” (태국남성 D 씨, 30 대)

<도표 21>



D씨는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고 외국인 노동자 중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동료인 태국인 친구와 늘 같이 생활을 하고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도가 높다. 시간이 나면 김해 거주 친구들, 창원 거주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회적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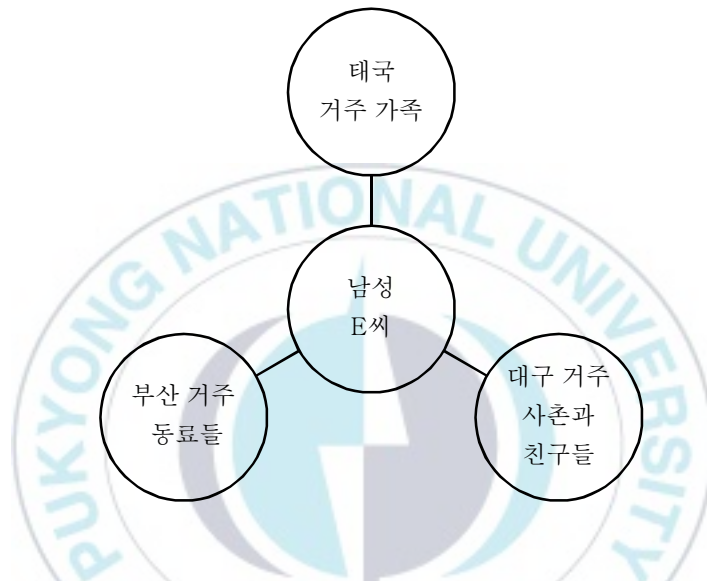
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D씨는 친구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고 이는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D씨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놀러 가기 좋은 장소, 아플 때 가는 병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이 활발하다. 서로의 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D씨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대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게 되었다. 회사 측에서도 D씨를 우수자로 다시 고용해서 8년 근무로 이어졌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진행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본인 회사의 대우가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 월급이나 기숙사 등 시설 면에서도 다른 회사와 비교해볼 때 더 좋다고 확신하였다.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었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으며 여가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Putnum(2000)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사회적인 요구에 합하여 커뮤니티 전체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이 사례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서 생활의 질이 좋아졌다는 생각된다.

위 사례는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친구 네트워크의 사례였지만 다음은 합법체류자로서 태국에 있는 친척을 불러서 만들어진 친척 네트워크에서 친구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사례이다.

사례3) 한국에서 8년째 체류중인 남성E씨는 한국에서 일을 하는 지인에게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으며, 태국에서 한국어를 한달 정도 공부하고 왔다. E씨는 나이가 43세이며, 태국에 부인과 딸 2명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월급은 250만원이었으며 대부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태국에 있는 사촌 여동생에게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유하여 사촌 여동생은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촌이 오기 전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었다. 그 사촌 여동생의 경우도 급여로 250만원을 받고 있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쇼핑도 즐기기도 한다. 주말이나 한국 명절 때 E씨는

친구, 사촌 여동생, 그 여동생의 친구 등 김해, 부산, 대구에서 모인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지인들과 만나서 놀러 다니기도 한다. E씨의 친구는 같은 회사 동료이고 사촌 여동생의 친구는 여동생의 동료와 그 동료의 친구들이다.

<도표 22>



이 사례는 먼저 한국에 들어온 E씨가 친척을 불러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사례인데 이민시스템론에 의하면 이주할 때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을 감소시켰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나중에 이주한 사람은 먼저 이주한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 자본이 되고 비용, 정보, 심리적 부담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정보를 듣고 온 친척도 월급이 만족스럽다고 하는 것이었다. E씨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친척 여성은 한국에 와서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을 늘리고 있다. 합법체류자는 안정적인고 충분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여행과 같은 여가생활을 할 수도 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서 그 도시에 있는 회사의 수입 정보도 들어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에는 언어 문제 때문에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신 네트워크 발달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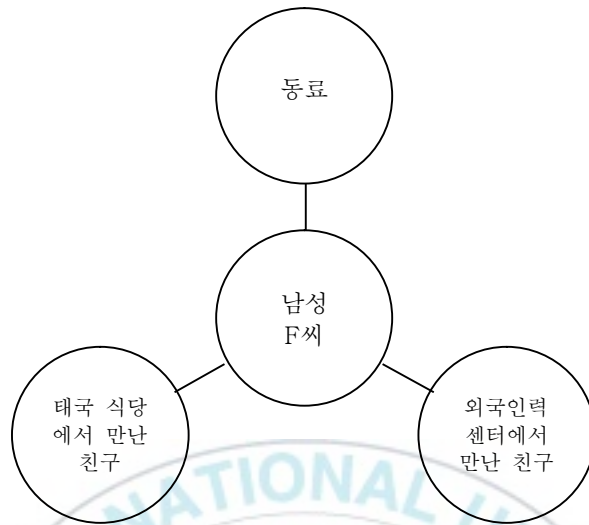
해 먼 거리에 살고 있어도 도와가면서 살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를 점과 점으로 이은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거주형태」로 변해가고 있다(梶原, 156:2001).

이 사례는 합법체류자가 외국인력센터에서 열리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례4) 용접 일을 하는 남성F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태국인 동료와 같이 살고 있다. 두 남성은 4년 정도 살았으며 독신이다. 김해외국인력센터에서 열리는 운동회 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한국어교실에서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태국인이 있어서 친구가 되었다. 쉬는 날은 태국식당에서 식사하거나 다른 회사를 다니는 태국친구와 만나서 놀기도 한다.



<도표 23>



F씨처럼 합법체류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 F씨 역시 김해외국인력센터의 한국어교실을 다녔다고 한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현단계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수입의 증가와 직접적인 요인이 되지 않으나 향후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서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F씨는 수입을 태국으로 송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활을 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다. 외국인력센터에서 열리는 각종행사에 참가하거나 도서관, 그리고 한국어교실에서 자주 만나는 태국인들과 친해졌고 태국식당에서 식사도 같이하게 되었다. 또한 태국식당에서도 다른 회사에 다니는 태국인들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즉, 공공기관이나 태국식당을 통해 친구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김해외국인력센터나 태국식당에서 만난 친구 중에는 2~3년 동안 일을 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도 있지만,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 서로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F씨의 경우는 자신이 친구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장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생겨 열심히 일을 한 결

과 우수 노동자가 되었다. 우수 노동자가 되면 체류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더 많아 진다.

다. 부업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김해 다문화가족센터의 태국 담당자와 인터뷰에서도 부업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정도라는 견해였다.

부업을 하는 사람 체류기간은 보통 5~7년 정도이며, 모두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이들은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등이 포함된 불법체류자만의 네트워크가 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워 태국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사례1) 태국 담당자는 태국인 결혼이민자인데 태국 남성G씨가 휴대폰가게를 시작할 때 통역을 해주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한국에서 친구나 태국 가족에게 연락할 때 생활의 필수품으로 휴대폰의 꼭 필요한 것이라 하였다. 다른 외국인 친구가 휴대폰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시작하였는데 휴대폰사업이 잘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부업으로 한다고 한다.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도 하고 사는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온 통지문을 읽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고민을 말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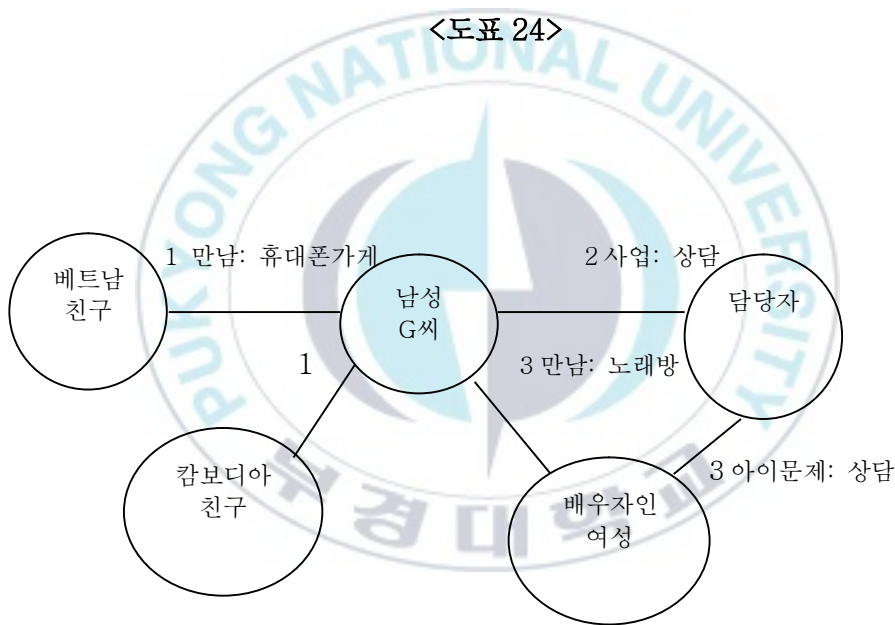
“어떤 불법체류자는 휴대폰가게를 해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베트남사람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번 돈으로 다른 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옷이나 태국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태국여성 담당자, 40 대)

이는 태국인 불법체류자와 다른 나라 불법체류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업을 전개하는 사례이다. 불법체류인 태국남성은 베트남인 친구가 휴대폰 가게를 하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베트남인 친구의 가게로 놀러가면서 친구가 되었다. 태국인은 6년 정도 체류하였고 베트남인은 7년 정도 체

류했기 때문에 서로 한국어가 가능해서 대화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태국인도 베트남인도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휴대폰가게를 하게 되었다. 태국인 휴대폰 가게는 잘되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까지 하게 되었다. 주위에 있는 캄보디아 친구들한테도 알렸고 다행히 친구들이 많은 이용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 친구도 한국어가 가능해서 태국식당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태국인 노동자들은 체류장기화가 되면서 한국어실력이 늘었다. 한국어 향상은 태국인 외에 다른 나라 외국인 노동자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사회적 자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부업의 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도표 24>



앞서 나온 사례는 친구 네트워크로 만들어 진 시장매개형 이주시스템로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은 금전적 관계에서 만들어진 시장매개형 이주시스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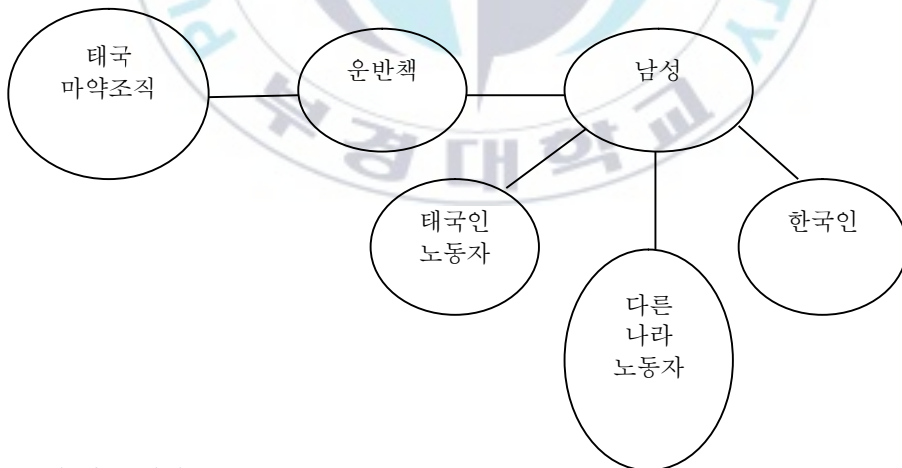
사례2) 태국 담당자에 따르면 태국인 부업 중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마약 판매라고 하였다. 불법체류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 판매도 한다고 한

다. 마약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본인이 위험을 느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태국에서 생필품 속에 마약을 숨기고 보내서 한국에 있는 태국인이 받고 팔아요. 더 이상은 말 못해요.”(태국여성 담당자, 40 대)

태국에서 밀반입된 마약은 한국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와 태국인 외의 외국인 노동자 혹은 한국인에게 판매한다. 한국에서는 SNS를 통해 전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SNS보급이 마약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한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마사지실을 운영하는 한국인 경영자가 마약을 사서 상습자가 된 사례도 있다고 상담 담당자가 말하였다.

<도표 25>



(남성=부업 하는 사람)

다음 사례는 시장매개형 시스템과 상호부조형 시스템의 서로 다른 점을 설명한다.

마약에 관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태국인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사람, 중개업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의 마약조직이 제조한 마약을 태국인이 한국으로 반입한다. 이러한 운반책은 공짜 해외여행과 운반하는 댓가로 목돈을 준다는 말에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운반책은 원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팔고 운이 좋으면 태국으로 돌아간다. 한국에 와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태국에 있을 때부터 마약을 했던 상습자가 대부분이다. 누가 마약을 팔고 있는지는 입 소문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퍼진다. 그 소문을 듣고 태국식당, 외국인 거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디든 마약판매장소가 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회사 기숙사로 직접 찾아가서 파는 경우도 있다. 불법체류자 중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이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자국민 네트워크를 벗어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상호부조형 이주시스템은 특정한 네트워크의 개개인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장매개형 이주시스템은 개개인의 인간관계가 신뢰보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장매개형 이주시스템은 서로의 신뢰형성에 필요한 사회관계를 발전시키기가 어렵고 높은 신뢰를 필요로 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하다(樋口, 63:2002). 이 사례는 부업을 하는 남성은 시장매개형 이주시스템 아래서 마약조직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립하였다. 또는 Putnum(2000)은 비슷한 사람들(출신, 민족성, 배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bonding capital, 이 사례에 나오는 관계 같이 여러 출신, 소속에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bridging capital로 분류하였다. 이 사례는 bridging capital에 분류된다. 이는 집단간의 연계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공통의 규범 구축에는 약하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축이 되었지만 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대관계가 단단하지 않아 부업으로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업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체류장기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결혼, 수입 그리고 부업의 항목이 체류장기화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필자는 태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인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적고 자국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 체류장기화가 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는 합법체류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결혼상대를 찾을 기회가 있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친밀도가 높아져서 결혼상대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결혼상대를 찾을 기회가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다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인데 불법체류자인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자체가 어려워 이는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만약 한국인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대된다면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 수집을 하여 이직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법체류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여가나 취미활동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었다. 합법체류자의 체류년수가 그다지 길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이용하면 좋은 수입을 얻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좋은 수입을 얻기까지 필요하다고 예상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부업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합법체류자중에서는 부업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중에는 부업의 사례가 보였는데 그 첫 번째 사례로는 친구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사회적 네트워크와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용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단순히 돈으로 연결되어 금전적 관계로 만들어진 측면이 많아 본 조사에서도 그 역할이 판매자가 됨과 동시에 구매자로도 되는 유동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간의 유대관계에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발생

하지는 않지만 부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관계가 유지되면서 상호부조관계로 발전하여 체류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요약해 보자면 결혼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혼상대를 찾고 체류장기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수입에 대한 정보 수집은 체류기간의 제약으로 합법체류노동자의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불법체류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업 역시 합법체류 노동자들에게서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체류노동자들은 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입과 부업의 문제는 체류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장기화가 지속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내에서 노동을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단지 자국의 네트워크에 머물지 않고 한국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는 것도 체류 장기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국어인데 지역사회에 널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실 등을 이용하거나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방송을 통한 자가 학습을 통해서도 한국어실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은 취미나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대로 연결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한국어와 같은 문화자본이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1) "2012 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쿼터 개시", <http://moel.go.kr/>, (2014.7.21)
- 김환선, 이성호(2002)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 김해시를 중심으로-" 都市研究報 제 13 호
- 김환선, 이성호(2002)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 김해시를 중심으로-" 都市研究報 제 13 호
- 나금실, 김희재, 최송식(2010)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 17 집 제 2 호
- 나금실, 김희재, 최송식(2010)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 17 집 제 2 호
- 나금실, 김희재, 최송식(2010)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탄력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 17 집 제 2 호
- 두산 백과 "김해시의 산업", <http://www.doopedia.co.kr>, (2014,6,4)
- 박세훈(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 23 집 제 1 호
- 법무부(2014),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4 년 8 월호", <https://www.moj.go.kr>(2014,10,13)
- 세계일보(2009) "다문화 한가족 시대(3 부)지구촌 가족(27)안산 외국인주민지원 센터", <https://segye.com/>(2013,4,11)
- 이순희, 이영주, 김숙영, 김신정(2009)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제 39 권 제 6 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1),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http://www.immigration.go.kr/>,(2012,10,23)
- 海外職業訓練協会(2009), 「タイ調査大項目 5 : 労働力の送付・受け入れについて」 海外職業訓練協会(2009), 「タイ調査大項目 5 : 労働力の送付・受け入れについて」
- 海外職業訓練協会(2009), 「タイ 労働力の送付・受け入れについて」, <http://www.ovta.or.jp/>(2012,1,30)
- 梶田孝道, 丹野清人, 樋口直人(2005), 『顔の见えない定住化 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 梶田孝道, 丹野清人, 樋口直人(2005), 『顔の见えない定住化 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 梶田孝道, 丹野清人, 樋口直人(2005), 『顔の见えない定住化 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 梶田孝道, 丹野清人, 樋口直人(2005), 『顔の见えない定住化 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学出版会
- 梶原久美子(2001), 「神戸市東灘区における日系ブラジル人コミュニティを考える」, 社会学部紀要第 9 0 号
- 金松花(2008), 「中国移民研究における移住システム論の意義」

- 日下部笑美(2016),「3種類目の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と社会起業家」,21世紀社会デザイン研究 No.15
- 桑原靖夫(2008),『外国人労働者と地域社会の未来』,公人の友社
- 桑原靖夫(2008),『外国人労働者と地域社会の未来』,公人の友社
- 経済社会総合研究所(2015),「第4部第3章 アジア通貨危機とその伝播」
- 関根政美(2000),『多文化主義の到来』,朝日新聞社
- 樽本英樹(2009),『よくわかる国際社会学』,ミネルヴァ書房
- 樽本英樹(2009),『よくわかる国際社会学』,ミネルヴァ書房
- 樽本英樹(2009),『よくわかる国際社会学』,ミネルヴァ書房
- 樽本英樹(2009),『よくわかる国際社会学』,ミネルヴァ書房
- 中央日報(2011)「韓国人はつらい仕事をしながらない 外国人労働者 70 万人時代 (2)」, <http://japanese.joins.com> (2011,8,30)
- 中央日報(2011)「韓国内で不法滞在する外国人労働者が急増」, <http://japanese.joins.com>, (2011,5,17)
- 日本経済新聞(2016)「外国人労働、陰る日本の魅力 韓国・台湾と争奪」, <https://www.nikkei.com/>(2016.7.12)
- 日本総研(2011)「アジアマンスリー"タイで深刻化する労働力不足」, <http://www.jri.co.jp/>(2012.6.4)
- 樋口直人(2002) "国際移民の組織的基盤-移住システム論の意義と課題-" ソシオロジ 第47号
- 百瀬圭吾(2006) "タイと日本の間に人身売買が起こる背景と人身売買廃絶に向けた市民活動の現状と課題"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6)「アジアにおける人の移動と労働市場(2006年)報告書」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6)「アジアにおける人の移動と労働市場(2006年)報告書」
- 労働政策研究・研究機構(2015)「主要国の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動向：韓国」, <https://www.jil.go.jp/>(2015.5.2)
-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6)「海外労働情報 タイ」, <https://www.jil.go.jp/>(2012, 3,30)
- J-CAST ニュース(2014),「アジア人労働者争奪戦」, <https://www.j-cast.com/>(2014,7,11)
- JETRO(2013)「アジアの賃金格差」, <http://www.jetro.go.jp/>(2014.6.17)
- Putnum, R.D.,(2000),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 Russell King(2010)『*The Atlas of HUMAN MIGRATION*』, Myriad Editions (ラッセルキング 竹沢尚一郎 稲葉奈々子 高畑幸(訳)(2011) 移住・移民の世界地図 丸善出版)
-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2009)『*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o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Macmillan publishers
(S.カースルズ M.J.ミラー 関根政美 関根薫(訳)(2011) 国際移民の時代
名古屋大学出版会)

